

한국축구 상징 '백호' 19년 만에 새 얼굴



새롭게 공개된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새로운 BI 발표... '두려움 없는 전진' 표현 국가대표팀 유니폼은 미국서 공개... 적용까지는 시간 걸러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백호'의 얼굴이 19년 만에 바뀌었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서울 종로구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엠블럼을 포함한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이하 BI)를 발표했다.

축구협회는 2001년 제작된 엠블럼을 19년 간 사용해왔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한 상징의 필요성이 커지며 새 BI 개발이 추진됐다.

새 엠블럼은 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의 상징인 '백호'를 살리되 호랑이 얼굴이 전면 배치되고 디자인이 단순해졌다.

은 그라운드들, 얼굴의 형태는 축구의 주요 포메이션을 형상화했다. 호랑이 패턴은 골문을 향한 상승과 전진을 표현했다.

전체적인 디자인 모티브는 '포워드 애로(Forward Arrow)'로, 축구협회와 대표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두려움 없는 전진(Moving Forward)'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색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상징색인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이 사용됐는데, 각 색상은 역동성, 용맹함과 도전정신, 신뢰감과 페어플레이를 상징한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안주나, 도

전이나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새 얼굴로 새각오를 담아 전진하겠다"면서 "달라진 얼굴만큼이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섭 협회 홍보마케팅실장은 "기존 엠블럼은 형태가 복잡해 유니폼에도 별도 제작해 부착해야 했지만, 새 엠블럼은 유니폼에 직접 프린팅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무게가 줄어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엠블럼을 담은 국가대표팀 유니폼은 6일 미국 뉴욕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의 2020시즌 각국 유니폼 라인업이 공개되는 글로벌 런칭 행사로, 국내 발표와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임은수 '우아하게' 5일 오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4대륙대회)에서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임은수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6일 오전 아이스 댄스를 시작으로 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여자골프 고진영 등 '빅3' 아시아대회 불참

훈련 부족·신종코로나 영향 3월 미국 본토 대회 출격 예정

한국 여자골프 선수 세계랭킹 '빅3' 고진영(25·사진)과 박성현(27), 김세영(27)이 이달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시아 스윙 대회에 불참한다.



세계랭킹 2위 박성현도 대회 출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면서 애초 출전 하려던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을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박성현 측은 "어게 부상은 다 나았지만 아무래도 훈련에 약간 차질이 생겼다. 최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서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3월 파운더스컵부터 시즌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이 대회에서 지난해 우승해 이번이 타이틀 방어전이다.

제주유나이티드, 공격수 주민규 영입

베테랑 정조국과 시너지 기대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공격수 주민규(29·사진)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규는 미드필더로 프로생활을 시작했지만 2015년 서울이랜드로 이적한 뒤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해 두각을 나타냈다. 이어 상주 상무를 거쳐 2019시즌을 울산 현대에서 뛰었으며 그해 28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제주는 이번 영입으로 공격전에 파괴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입한 베테랑 공격수 정조국과 함께 주민규가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감이다.

남기일 감독은 "주민규가 가세하며 공격 옵션이 더욱 다양해졌다"며



서 "기존 선수들과의 조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규는 "나를 향한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부응하고 싶다"며 "제주라는 좋은 팀에 합류해 기쁘다. 올해 제주의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루니, FA컵서 친정팀 맨유와 맞대결

내달 6일 FA컵 16강 맨유전

잉글랜드 축구 스타 웨인 루니(35·더비카운티)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맞붙게 됐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소속 더비카운티는 5일(한국시간) 홈구장인 영국 더비의 프라이드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FA컵 4라운드(32강) 재경기에서 4부리그(리그 2) 팀 노샘프턴 타운에 4-2로 이겼다.

루니는 선발 출전해 더비카운티가 3-1로 앞서 있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으로 썬더볼을 넣는 등 풀타임을 뛰며 16강 진출에 힘을 보탤다.

공교롭게도 더비카운티의 FA컵 16강 상대가 맨유다. 맨유는 3부리그

(리그1) 트랜미어 로버스를 6-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선착했다.

맨유는 루니가 13시즌을 보낸 팀이다. 2002년 에버턴에서 프로로 데뷔한 루니는 2004년 맨유에 입단한 뒤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성장했다.

맨유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93경기에서 183골을 터뜨리고 5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등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냈다.

맨유를 떠난 후 에버턴에 이어 미국프로축구(MLS) D.C.유나이티드에 입단했던 루니는 지난해 여름, 더비카운티와 '플레이코치'로 계약하며 잉글랜드 복귀를 선언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년 6개월이다.

루니는 다음 달 6일 맨유와 마주선다.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대륙과 함께!

확장이전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히트상품
이중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감굴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MX-500DL (케도형 덩크+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남원! 300m
위미농협 주유소
위미
효문삼거리
예전위치

대륙종합농기계

767-3430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